

여러 나라의 정치와 생활 모습

대치동 재우쌤 한국사

여러 나라가 함께 성장한 시대

철기 문화가 퍼지면서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여러 나라가 성장했습니다. 만주는 오늘날 중국 동북부 일대를 말합니다. 부여는 송화강 주변의 평야에서, 고구려는 압록강과 그 주변 산간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 옥저와 동예는 한반도 동북쪽의 동해안에 있었고, 삼한은 한반도 중남부의 여러 작은 나라를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다스려지지 않았습니다. 왕과 지역 지배자의 관계도 달랐고, 혼인과 제사 풍습도 달랐습니다. 여러 나라가 차례로 하나씩 생겼다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서로 같은 시기에 존재한 때도 있었습니다.

예상 질문 11

- Q01 부여에는 왕이 있었는데, 왜 마가·우가·저가·구가가 따로 지역을 다스렸나요?
- Q02 고구려의 제가 회의는 무엇이며, 왕이 있는데 왜 회의를 했나요?
- Q03 옥저와 동예에는 왕이 없었다는데, 그러면 누가 다스렸나요?
- Q04 동예의 책화와 족외혼은 어떤 규칙인가요?
- Q05 고구려의 서옥제와 옥저의 민며느리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 Q06 형사취수제는 서옥제와 같은 풍습인가요?
- Q07 부여의 순장과 옥저의 가족 공동 무덤은 어떻게 다른가요?
- Q08 영고·동맹·무천과 삼한의 제천 행사는 왜 열었나요?
- Q09 삼한의 천군은 왕인가요? 소도에서는 왜 죄인을 잡지 못했나요?
- Q10 삼한에서는 농사를 지었다는데, 변한의 철은 왜 중요했나요?
- Q11 마한·진한·변한이 바로 백제·신라·가야로 이름을 바꾼 건가요?

한눈에 정리 · 확인 문제 22 · 정답과 해설

Q01 부여에는 왕이 있었는데, 왜 마가·우가·저가·구가가 따로 지역을 다스렸나요?

한 줄 답

여러 지역의 지배 세력이 힘을 합쳐 나라를 이루었고, 왕이 생긴 뒤에도 각 지역을 다스리는 힘을 상당 부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용어 풀이

마가·우가·저가·구가	부여에서 힘이 큰 지배자들이 사용한 이름. 앞 글자는 각각 말·소·돼지·개를 뜻함. 여기서 ‘가’는 지배자를 가리키는 말임.
사출도	부여에서 여러 가가 나누어 다스린 네 방면의 지역.
연맹 왕국	여러 집단이 힘을 합쳐 왕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었지만, 각 집단의 지배자가 여전히 강한 힘을 가진 형태.
중앙 집권	왕과 중앙의 통치 조직에 권력이 집중되어 지방까지 다스리는 모습. 왕이 모든 마을을 직접 찾아가 다스린다는 뜻은 아님.
왕권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

설명1 부여는 송화강 유역, 곧 강 주변의 평야를 바탕으로 농사와 목축을 하였습니다. 목축은 가축을 기르는 일입니다. 왕 아래에는 마가·우가·저가·구가 같은 지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왕의 친척 네 사람의 이름이나 동물 사육 담당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설명2 여러 가는 사출도를 맡아 각 지역과 주민을 다스렸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중앙 지역까지 합치면 다섯 부로 설명합니다. ‘부’는 나라를 이루는 집단이나 구역을 뜻합니다. 왕이 지방에 보낸 관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자기 세력을 가진 지배자들이 함께 나라를 운영한 것입니다.

설명3

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앙 집권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여에는 홍수나 가뭄으로 농사가 잘되지 않으면 왕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의 힘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은 아니지만, 여러 가가 왕의 권력 행사를 제한할 힘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부여는 이런 연맹 왕국의 성격을 유지하다가 결국 고구려의 영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부여의 왕과 여러 가는 함께 존재했습니다. 사출도는 여러 가가 다스린 지방이며, ‘왕이 있음’과 ‘중앙 집권이 완성됨’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부여의 왕과 여러 가

중앙과 사출도의 네 지역을 합쳐 다섯 부



여러 가: 마가·우가·저가·구가

그림 1. 왕이 다스리는 중앙 지역과 여러 가가 다스리는 사출도를 나누어 표시했습니다.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식으로, 실제 지도나 각 지역의 크기·방위·경계를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Q02 고구려의 제가 회의는 무엇이며, 왕이 있는데 왜 회의를 했나요?

한 줄 답

제가 회의는 힘 있는 지배자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던 회의로, 초기 고구려에서 왕뿐 아니라 여러 지배 세력의 힘도 컸음을 보여 줍니다.

용어 풀이

제가	여러 ‘가’, 곧 여러 지배자를 함께 부르는 말.
제가 회의	초기 고구려에서 유력한(힘과 영향력이 큰) 지배자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던 회의.
귀족	높은 신분과 권력을 가진 지배층. 신분은 사회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지위나 등급을 뜻함.
정복	무력으로 다른 지역이나 나라를 굴복시켜 지배하는 것.
공물	지배를 받는 쪽이 지배하는 쪽에 바치는 물품.

설명1 초기 고구려는 여러 집단이 모인 연맹 왕국이었습니다. 상가·고추가는 고구려에서 힘이 큰 지배자를 부르던 이름입니다. 이들은 왕 아래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관리를 거느렸습니다. 왕 혼자 나라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설명2 여러 지배자는 제가 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논의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의 처벌을 결정한 기록도 전합니다. 이는 귀족들이 나라의 운영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주민이 같은 자격으로 참여하는 오늘날의 주민 회의와는 다릅니다.

설명3 고구려가 성장한 압록강 일대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 넓은 농토가 부족했습니다. 고구려는 농사를 짓지 않은 나라가 아니라, 부족한 식량과 자원을 확보하려고 주변으로 세력을 넓힌 나라입니다. 옥저 등을 정복해 공물을 받았고, 성장 과정에서 점차 왕권과 중앙의 통치 조직도 강화했습니다. 초기 제가 회의의 모습만으로 고구려의 왕권이 언제나 약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시험 포인트

제가 회의: 초기 고구려의 유력한 지배자들이 중요한 일을 논의함. 왕이 없었다거나, 모든 주민이 참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구려는 이후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Q03 옥저와 동예에는 왕이 없었다는데, 그러면 누가 다스렸나요?

한 줄 답

나라 전체를 통합한 왕 대신 읍군·삼로 같은 군장들이 각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주변 강국의 압박도 받아 큰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용어 풀이

읍락	사람들이 모여 살며 농사와 여러 생활을 함께 하던 마을 공동체.
군장	작은 나라나 지역 집단을 이끄는 지배자.
읍군·삼로	옥저와 동예에서 지역을 다스린 군장의 명칭.
특산물	어떤 지역에서 특히 많이 나거나 이름난 물품.
단궁·과하마·반어피	동예의 특산물. 단궁은 활의 한 종류, 과하마는 키가 작은 말, 반어피는 바다표범의 가죽임.

설명1 옥저는 오늘날 함경도 동해안 일대에, 동예는 그 남쪽의 강원도 북부 동해안 일대에 자리했습니다. 두 곳에서는 읍군·삼로 같은 군장들이 읍락을 다스렸습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은 여러 지역을 한데 통합한 왕이 없었다는 뜻이지, 지배자나 규칙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명2 옥저는 농사가 잘되고 물고기와 소금 등 해산물이 풍부했습니다. 동예에서도 농사와 고기잡이를 했으며, 실로 옷감을 짜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동예의 특산물로 단궁·과하마·반어피가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회를 먹을거리나 생활 기술이 전혀 없는 곳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명3 각 지역 세력이 나뉘어 있던 데다 주변의 고구려가 세력을 넓히며 압박했습니다. 옥저는 고구려에 물고기와 소금 등을 공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옥저와 동예는 이런 조건 속에서 여러 지역을 통합한 강한 왕권과 통치 조직을 갖추기 어려웠고, 점차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시험 포인트

옥저·동예: 통합된 왕 없이 읍군·삼로 등이 지역을 다스림. ‘왕이 없음’을 ‘지배자·규칙·농사가 없음’으로 바꾸어 읽지 마세요.

Q04 동예의 책화와 족외혼은 어떤 규칙인가요?

한 줄 답

책화는 다른 읍락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말·노비 등으로 배상하게 한 규칙이고, 족외혼은 같은 씨족 안에서 혼인하지 않는 풍습입니다.

용어 풀이

책화	다른 읍락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말·노비 등으로 배상하게 한 동예의 풍습.
배상	자신이 잘못하여 남에게 입힌 손해를 갚는 것.
노비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일하던 신분의 사람.
씨족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고 여기는 혈연 집단. 혈연은 핏줄로 맺어진 관계임.
족외혼	같은 씨족 사람끼리 혼인하지 않고, 다른 씨족 사람과 혼인하는 풍습.

설명1 동예에서는 산과 내(시냇물)를 중요하게 여기고 각 집단의 영역을 구분했습니다. 산과 들에는 농사지를 땅이나 사냥할 곳처럼 생활에 필요한 자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단이 함부로 들어오면 그곳 사람들의 생활에 피해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설명2 다른 읍락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에 따라 소·말·노비 등으로 갚게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제한하고 각 집단의 생활권을 지키는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설명3 동예에서는 족외혼도 지켰습니다.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고 여기는 집단 안에서는 혼인하지 않고 바깥의 집단과 혼인한 것입니다. 책화가 ‘생활 영역을 침범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규칙이라면, 족외혼은 ‘누구와 혼인할 수 있는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족외혼을 반드시 외국인과 혼인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시험 포인트

책화: 영역 침범에 대한 배상. 족외혼: 같은 씨족 안의 혼인을 피함. 두 풍습은 모두 동예와 연결하되, 무엇에 관한 규칙인지 구별합니다.

Q05 고구려의 서옥제와 옥저의 민며느리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 줄 답

서옥제는 신랑이 신부 집의 작은 집에서 살다가 자녀가 자란 뒤 가족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는 풍습이고, 민며느리제는 어린 신부가 신랑 집에서 자란 뒤 친정에 돌아갔다가 예물을 받고 다시 와 혼인하는 풍습입니다.

용어 풀이

서옥	‘사위의 집’이라는 뜻. 신부 집의 뒤쪽에 마련한 작은 집.
서옥제	신랑이 신부 집 쪽에서 살다가, 자녀가 자라면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고구려의 혼인 풍습.
민며느리제	혼인을 약속한 어린 여자가 신랑 집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면 친정에 돌아가고, 신랑 쪽이 예물을 치른 뒤 다시 신랑 집에 와 혼인하는 옥저의 풍습.
친정	혼인한 여자나 혼인할 여자의 부모 집. 여기서는 신부의 원래 집을 뜻함.
예물	혼인할 때 주고받는 물품이나 돈.

설명1 고구려의 서옥제에서는 혼인을 약속하면 신부 집 뒤에 서옥을 마련했습니다. 신랑은 그곳에서 아내와 살았습니다. 자녀가 자란 뒤에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신랑의 원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간다’는 앞부분뿐 아니라 나중의 이동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설명2 옥저의 민며느리제에서는 어린 여자가 장래 신랑의 집에 가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면 친정으로 돌아갔고, 신랑 쪽이 예물을 치르면 다시 신랑 집으로 와 혼인했습니다. 어린 신부가 처음 신랑 집에 들어간 때와 성인이 되어 정식으로 혼인하는 때를 구별하세요.

설명3

당시 농사와 집안일에는 사람의 일할 힘인 노동력이 중요했습니다. 신부가 신랑 집으로 옮겨 살면 친정은 일할 사람을 잃게 됩니다. 서옥제에서는 신랑이 한동안 신부 집에서 살며 일을 거들었고, 민며느리제에서는 신랑 쪽이 신부의 친정에 예물을 보냈습니다. 두 풍습은 이렇게 노동력을 보태거나 예물을 보내 친정의 노동력 감소를 보상하는 일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합니다.

시험 포인트

서옥제(고구려): 신랑이 신부 집에서 생활. 민며느리제(옥저): 어린 신부가 신랑 집에서 성장. ‘누가 어느 집으로 가는가’와 ‘그 뒤의 이동’을 함께 구분합니다.

서옥제와 민며느리제

그림 2. 두 혼인 풍습의 생활 장소와 이동 순서를 비교한 도식입니다. 화살표는 시간에 따른 과정이며, 아래쪽의 예물은 신랑 쪽에서 신부의 친정에 보내는 것입니다.

Q06 형사취수제는 서옥제와 같은 풍습인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형사취수제는 형이 죽은 뒤 동생이 형수와 혼인하는 풍습이고, 서옥제는 혼인한 부부가 어느 집에서 생활하는지에 관한 풍습입니다.

용어 풀이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혼인하는 풍습. 부여와 고구려에서 확인됨.
형수	남자가 자기 형의 아내를 부르는 말.

설명1 ‘형사취수’는 형이 죽은 뒤 형수를 아내로 맞는다는 뜻입니다. 말이 길어 어려워 보여도 ‘형의 죽음 → 동생과 형수의 혼인’이라는 관계를 잡으면 됩니다. 어린 여자를 신랑 집으로 데려오는 민며느리제와도 다릅니다.

설명2 이런 풍습은 남편이 죽은 뒤에도 가족의 결합을 유지하고 재산이 집안 밖으로 흩어지는 것을 막는 일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노동력과 재산을 가족 단위로 유지하는 일이 중요했던 사회의 모습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설명3 같은 나라에 서로 다른 혼인 풍습이 함께 전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서옥제와 형사취수제는 살피는 기준이 다릅니다. 서옥제는 ‘혼인 뒤 어디에서 사는가’를, 형사취수제는 ‘형이 죽은 뒤 누구와 혼인하는가’를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두 풍습을 모두 거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형사취수제(부여·고구려): 형이 죽은 뒤 동생이 형수와 혼인. 서옥제·민며느리제와 이름을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Q07 부여의 순장과 옥저의 가족 공동 무덤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 줄 답

순장은 지배자가 죽었을 때 살아 있던 다른 사람까지 죽여 함께 묻는 풍습이고, 가족 공동 무덤은 이미 죽은 가족들의 뼈를 한곳에 모아 묻는 풍습입니다.

용어 풀이

순장	지배자가 죽으면 그를 따르던 사람 등을 죽여 함께 묻는 장례 풍습.
가족 공동 무덤	가족 구성원들의 유해를 한곳에 모아 묻은 무덤. 유해는 죽은 사람의 몸이나 남은 뼈를 뜻함.
목곽	무덤 안에 나무로 짠 큰 공간. 관이나 유해를 넣는 데 쓰임.

설명1 부여에서는 왕이 죽으면 다른 사람들을 함께 묻는 순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죽은 뒤에도 지배자를 모시게 한다는 생각과 관련됩니다. 살아 있던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지배자의 강한 힘과 사람들 사이의 신분 차이를 보여 줍니다.

설명2 옥저에서는 가족이 죽으면 먼저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 뼈를 골라 모아 큰 목곽에 옮겨 두었습니다. 먼저 죽은 가족들의 뼈와 함께 모아 두는 가족 공동 무덤입니다. 가족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뜻도, 살아 있는 가족을 죽여 묻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설명3 둘 다 무덤에 여러 사람이 있다는 점만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구별할 기준은 ‘지배자의 죽음 때문에 다른 사람도 희생시켰는가’와 ‘따로 죽은 가족의 뼈를 모았는가’입니다. 무덤의 크기나 묻힌 사람 수만 보고 두 풍습을 같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포인트

부여의 순장과 옥저의 가족 공동 무덤은 서로 다른 장례 풍습입니다. 함께 묻혔다는 결과만 보지 말고,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묻혔는지 살핍니다.

Q08 영고·동맹·무천과 삼한의 제천 행사는 왜 열었나요?

한 줄 답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농사나 사냥이 잘되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행사였습니다. 나라에 따라 이름과 시기가 달랐습니다.

용어 풀이

제천 행사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
영고·동맹·무천	각각 부여·고구려·동예의 제천 행사 이름.
결속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하나의 집단으로 뭉치는 것.
음력	달의 모양이 변하는 주기를 바탕으로 날짜와 달을 정하는 달력. 여기서 제천 행사의 시기는 음력으로 읽음.

설명1 농사와 사냥은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도움을 바라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 때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과 술을 나누고 노래와 춤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함께 사는 집단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설명2 부여의 영고는 12월에 열렸으며 사냥을 중시했던 전통과 연결해 이해합니다. 고구려의 동맹과 동예의 무천은 10월에 열렸습니다. 모든 제천 행사가 같은 달에 열렸거나, 모두 가을에 곡식을 거둔 직후의 행사였던 것은 아닙니다.

설명3 삼한에서는 씨를 뿌린 뒤인 5월과 곡식을 거둔 뒤인 10월에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씨를 뿌린 뒤에는 잘 자라기를 바라고, 거둔 뒤에는 수확에 감사하는 농경 생활과 연결됩니다.

시험 포인트

부여 영고 12월, 고구려 동맹 10월, 동예 무천 10월, 삼한 5월·10월. 공통점은 제천 행사이고, 시기와 생활 배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Q09 삼한의 천군은 왕인가요? 소도에서는 왜 죄인을 잡지 못했나요?

한 줄 답

천군은 정치를 맡은 군장과 구별되는 제사장입니다. 소도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 군장의 힘이 함부로 미치지 못했으며, 이 모습에서 제사와 정치가 나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삼한	마한·진한·변한을 함께 부르는 이름. 세 집단 각각에 여러 소국이 있었음.
소국	규모가 작은 나라.
신지·읍차	삼한의 소국을 다스린 군장의 명칭.
천군	삼한에서 제사를 맡은 제사장.
소도	삼한의 신성한 제사 공간. 신성하다는 말은 신과 관련되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고 여겼다는 뜻임.
제정 분리	제사를 맡는 역할과 정치를 맡는 역할이 나뉜 모습. 한 지배자가 둘을 함께 맡는 제정일치와 구별함.

설명1 삼한의 소국에는 신지·읍차 등으로 불린 군장들이 있었습니다. 군장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제사를 맡은 천군은 이 정치 지도자와 구별됩니다. 천군이라는 이름에 ‘군’이 들어 있다고 해서 곧 나라의 왕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설명2 소도에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신성한 곳임을 나타냈습니다. 이곳에서 제사와 종교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로 도망쳐 와도 함부로 잡아가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소도가 군장의 지배가 그대로 미치는 일반 마을과 달리 여겨졌음을 보여 줍니다.

설명3 정치 지도자인 군장과 제사장인 천군이 구별되고, 소도라는 특별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정 분리라고 부릅니다. 죄인을 함부로 잡아가지 못했다는 말은 삼한 어디에서나 범죄가 허용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치 권력이 신성한 공간을 제약 없이 지배하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험 포인트

군장(신지·읍차): 정치 지도자. 천군: 제사장. 소도: 신성한 공간. 천군과 소도는 삼한의 제정 분리를 보여 주는 단서입니다.



그림 3. 소도의 큰 나무에 방울과 북을 매달고 사람들이 제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재구성했습니다. 소도는 신성하게 여긴 공간입니다. 이해를 돕는 재구성 그림이며, 실제 유적 사진이나 당시 의식·옷차림의 정확한 복원도는 아닙니다.

Q10 삼한에서는 농사를 지었다는데, 변한의 철은 왜 중요했나요?

한 줄 답

철은 농기구와 무기를 만드는 재료이면서 다른 지역과 거래하는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변한은 철을 많이 생산하여 낙랑과 왜 등에 내보냈습니다.

용어 풀이

철제 농기구	쇠로 만든 농사 도구.
교역	서로 물품을 사고팔거나 바꾸는 일.
낙랑	고조선 멸망 뒤 중국의 한나라가 설치한 군현 가운데 하나인 낙랑군. 군현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한 행정 구역임.
왜	당시 일본 열도에 있던 여러 정치 집단을 가리키는 이름.
화폐	물건값을 치르거나 물건의 가치를 비교할 때 쓰는 수단.

설명1 삼한에서는 철제 농기구를 이용해 농사를 지었고, 벼농사도 발달했습니다. 벼농사는 쌀을 얻기 위해 벼를 기르는 농사입니다. 물을 모아 두었다가 논에 대는 저수지처럼 농사에 필요한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벼농사가 삼한 때 처음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명2 삼한 가운데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철은 농기구나 무기를 만들 수 있어 주변 지역에서도 필요로 하는 물품이었습니다. 변한 사람들은 철을 낙랑과 왜 등에 보내고, 필요한 다른 물품을 얻었습니다. 철 생산은 주변 지역과의 교역을 늘리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설명3 철은 교역에서 화폐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물건을 얻는 대가로 철을 건넬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철 자체를 물건값처럼 주고받았다는 뜻이지, 철로 동전을 만들어 썼다는 뜻이 아닙니다. 농업과 철 생산, 교역이 함께 발달했다는 관계를 잡으면 됩니다.

시험 포인트

삼한: 철제 농기구를 이용한 농업과 벼농사 발달. 변한: 철을 생산하여 낙랑과 왜 등에 수출하고, 교역에서 화폐처럼 이용. 철은 도구의 재료이면서 교역품이었습니다.

Q11 마한·진한·변한이 바로 백제·신라·가야로 이름을 바꾼 건가요?

한 줄 답

아닙니다. 여러 소국 가운데 힘을 키운 세력이 주변을 통합하면서 백제와 신라가 성장하고, 변한 지역에서는 가야의 여러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통합	나뉘어 있던 집단이나 지역을 하나로 합치는 것.
목지국	마한의 여러 소국 가운데 한때 중심 세력을 이루었던 나라.
사로국	진한의 소국 가운데 하나로, 신라로 발전한 나라.
가야 연맹	변한 지역에서 성장한 여러 나라가 연합한 정치 집단.

설명1 마한·진한·변한은 각각 여러 소국을 포함했습니다. 오늘날의 지명으로 보면 마한은 경기·충청·전라 지역, 진한은 대구·경주 일대, 변한은 김해·마산 일대의 낙동강 하류를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삼한 전체를 한 명의 왕이 같은 힘으로 다스린 단일 국가로 보면 안 됩니다.

설명2 마한에서는 한때 목지국이 중심 세력이었습니다. 이후 한강 유역의 백제가 성장해 주변 마한의 소국들을 점차 통합했습니다. 진한에서는 사로국이 성장하여 신라로 발전했고,

변한에서는 여러 소국이 가야의 여러 나라로 이어졌습니다. 이 변화가 모두 같은 해에 한꺼번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설명3

따라서 ‘마한 → 백제, 진한 → 신라, 변한 → 가야’라는 연결은 성장의 바탕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 집단 전체가 어느 날 새 이름을 달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가야는 여러 나라가 각자의 세력을 유지한 연맹이었으므로, 하나의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이룬 백제·신라와 구별해야 합니다.

시험 포인트

마한에서 백제, 진한의 사로국에서 신라, 변한 지역에서 가야가 성장했습니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여러 소국의 경쟁과 통합을 거친 변화입니다.

한눈에 정리

누가 다스렸나요?

나라·집단	정치 모습과 이해할 점	관련 본문
부여	왕이 있었고 여러 가가 사출도를 다스림. 지방 지배자의 힘이 큰 연맹 왕국.	Q01
초기 고구려	왕과 여러 지배 세력이 존재. 제가 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논의함. 이후 중앙 집권 강화.	Q02
옥저·동예	통합된 왕 없이 읍군·삼로 등이 각 지역을 다스림. 고구려의 압박과 지배를 받음.	Q03
삼한	여러 소국의 군장이 정치를 맡고, 천군은 제사를 맡음. 소도와 제정 분리.	Q09·Q11

생활과 풍습은 어떻게 달랐나요?

나라·집단	생활·풍습·변화	관련 본문
부여	농경·목축, 형사취수제, 순장, 영고(12월).	Q01·Q06~Q08
고구려	산간 지역에서 성장, 정복 활동과 공물 확보, 서옥제·형사취수제, 동맹(10월).	Q02·Q05·Q06·Q08
옥저	농경·해산물, 고구려에 공물,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 무덤.	Q03·Q05·Q07
동예	농경·고기잡이·옷감 제작, 단궁·과하마·반어피, 책화·족외혼, 무천(10월).	Q03·Q04·Q08
삼한	철제 농기구·벼농사, 변한의 철 생산과 교역, 5월·10월 제천 행사. 마한에서 백제, 진한에서 신라, 변한에서 가야가 성장.	Q08·Q10·Q11

확인 문제

확인 01

부여에서 마가·우가·저가·구가 같은 여러 가가 나누어 다스린 네 방면의 지역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답 _____

확인 02

부여에 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왕이 있었으므로 여러 가는 자기 지역을 다스리지 못했다.
- ② 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중앙 집권의 완성을 알 수 있다.
- ③ 왕과 여러 가가 함께 존재했으므로 각각의 힘을 살피야 한다.
- ④ 왕은 직책의 이름일 뿐 실제로 다스리는 지역은 전혀 없었다.

답 _____

확인 03

고구려의 제가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힘 있는 지배자들이 중요한 일을 논의하는 회의였다.
- ② 모든 주민이 같은 자격으로 참여하여 결정하는 회의였다.
- ③ 부여의 여러 가가 사출도의 경계를 정하던 회의였다.
- ④ 제사장인 천군들이 소도의 일만을 의논하는 회의였다.

답 _____

확인 04

고구려가 주변으로 세력을 넓힌 배경에 맞게 빈칸을 채우세요.

산과 골짜기가 많아 넓은 _____ (이)가 부족했던 고구려는, 식량과 자원을 얻기 위해 주변 지역을 정복하기도 했다.

확인 05

옥저와 동예의 정치 모습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왕이 없었으므로 주민을 다스리는 지배자도 없었다.
- ②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 사이의 규칙도 없었다.
- ③ 고구려 왕이 각 읍락에서 직접 매일 일을 지시했다.
- ④ 통합된 왕 없이 읍군·삼로 등이 각 지역을 다스렸다.

답 _____

확인 06

동예의 특산물 이름과 뜻이 맞도록 빈칸을 채우세요.

ㄱ. 단궁: _____의 한 종류

ㄴ. 과하마: 키가 작은 _____

ㄷ. 반어피: _____의 가죽

확인 07

동예의 책화에서 알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다른 집단의 땅과 자원은 허락 없이도 함께 쓸 수 있었다.
- ② 각 집단의 생활 영역을 구분하고 침범한 책임을 물었다.
- ③ 같은 씨족 사람끼리만 혼인하도록 엄격하게 정하였다.
- ④ 왕이 각 읍락의 땅을 직접 나누어 주며 주민을 다스렸다.

답 _____

확인 08

동예에서 같은 씨족 안의 사람과 혼인하지 않는 풍습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답 _____

확인 09

고구려의 서옥제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어린 신부가 신랑 집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면 친정에 돌아갔다.
- ② 신랑이 신부 집에서 살았으므로 자녀가 자라도 그곳에만 머물렀다.
- ③ 신랑이 신부 집에서 살다가 자녀가 자라면 가족과 자기 집으로 갔다.
- ④ 형이 죽은 뒤 동생이 형수와 혼인하여 한집에서 가족으로 살았다.

답 _____

확인 10

어린 신부가 신랑 집에서 자란 뒤 친정으로 돌아갔다가, 신랑 쪽이 예물을 치르면 다시 와서 혼인하는 풍습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답 _____

확인 11

형사취수제와 서옥제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둘은 이름만 다르고 모두 어린 신부가 신랑 집에서 자라는 풍습이다.
- ② 형사취수제는 공동 무덤에 묻는 풍습이고 서옥제는 혼인 풍습이다.
- ③ 두 풍습이 고구려에 전하므로 모든 주민이 두 풍습을 모두 거쳤다.
- ④ 형사취수제는 형 사망 뒤의 혼인 상대, 서옥제는 생활 장소와 관련된다.

답 _____

확인 12

설명에 맞는 장례 풍습의 이름을 쓰세요.

ㄱ. 부여에서 지배자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함께 묻음: _____

ㄴ. 옥저에서 죽은 가족의 뼈를 나중에 골라 한곳에 모아 묻음: _____

확인 13

옥저의 가족 공동 무덤에 대해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먼저 죽은 가족들의 뼈를 한곳에 모아 두는 풍습이다.
- ② 지배자가 죽으면 살아 있는 가족을 모두 죽여 묻는 풍습이다.
- ③ 한 무덤에 여러 사람의 유해가 있으므로 모두 같은 날 죽은 것이다.
- ④ 같은 무덤에 묻혔다는 점에서 부여의 순장과 같은 풍습이다.

답 _____

확인 14

빈칸에 제천 행사 이름이나 시기를 쓰세요. 시기는 음력입니다.

ㄱ. 부여 — _____ — 12월

ㄴ. 고구려 — _____ — 10월

ㄷ. 동예 — _____ — 10월

ㄹ. 삼한 — _____ 월과 _____ 월에 제천 행사

확인 15

“여러 나라의 제천 행사는 모두 가을에 곡식을 거둔 직후에 열렸어.”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동맹은 고구려의 행사가 아니라 옥저의 행사이기 때문이다.
- ② 영고는 12월에 열렸고, 삼한에는 5월 행사도 있었기 때문이다.
- ③ 무천에서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 ④ 모든 나라가 농사나 사냥과 관계없이 행사를 열었기 때문이다.

답 _____

확인 16

삼한의 인물·공간을 구별하여 빈칸을 채우세요.

- ㄱ. 신지·읍차처럼 소국의 정치를 이끈 지배자: _____
- 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을 맡은 제사장: _____
- ㄷ. 큰 나무에 방울과 북을 매단 신성한 공간: _____

확인 17

죄를 지은 사람도 소도에 들어가면 함부로 잡아가지 못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① 천군이 삼한 전체의 정치와 제사를 모두 지배한 왕이었다.
- ② 삼한의 모든 지역에서 도둑질을 허용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 ③ 군장의 정치 권력이 소도에 함부로 미치지 못했다.
- ④ 소도는 천군과 관계없이 군장이 죄인을 가두는 감옥이었다.

답 _____

확인 18

삼한을 제정 분리 사회라고 부르는 까닭을 한 문장으로 쓰세요. 정치를 맡은 사람과 제사를 맡은 사람이 누구인지, 두 역할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모두 넣으세요.

답 _____

확인 19

변한의 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농기구·무기의 재료였고 낙랑과 왜 등에 보내는 교역품이기도 했다.
- ② 철을 생산했으므로 농사에 필요한 도구는 모두 돌로만 만들어 썼다.
- ③ 화폐처럼 쓰였으므로 철로 오늘날과 같은 동전을 만들어 거래했다.
- ④ 주변에서 철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와 교역하지 않았다.

답 _____

확인 20

삼한과 뒤에 성장한 나라·연맹을 연결하여 빈칸을 채우세요.

- ㄱ. 마한의 소국들을 점차 통합하며 성장한 나라: _____
- ㄴ. 진한의 사로국에서 발전한 나라: _____
- ㄷ. 변한 지역에서 성장한 여러 나라의 연맹: _____

확인 21

삼한과 백제·신라·가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마한·진한·변한 전체가 같은 해에 새 이름으로 바뀌었다.
- ② 목지국이 마한·진한·변한을 모두 합쳐 가야를 세웠다.
- ③ 가야는 처음부터 모든 지역을 한 왕이 강하게 다스렸다.
- ④ 여러 소국의 경쟁과 통합 속에서 각 나라와 연맹이 성장했다.

답 _____

확인 22

나라와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부여 — 제가 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소도를 운영함.
- ② 동예 — 책화로 영역 침범에 책임을 묻고 족외혼을 지킴.
- ③ 옥저 — 신랑이 서옥에서 살다가 자녀와 자기 집으로 돌아감.
- ④ 삼한 — 여러 가가 사출도를 다스리고 영고라는 행사를 엮.

답 _____

정답과 해설

확인 01

정답 사출도

부여에서는 여러 가가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중앙 지역까지 합쳐 다섯 부로 설명합니다. ‘사출도’는 지역을 가리키며 지배자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관련 본문: Q01 설명2

확인 02

정답 ③

왕이 있어도 지역 지배자들의 힘이 강할 수 있습니다. 왕의 존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왕이 지방을 얼마나 다스리고 여러 가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 ① 여러 가는 자기 세력을 가지고 사출도를 다스렸습니다.
- ② 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앙 집권의 완성을 알 수는 없습니다.
- ④ 왕은 중앙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왕에게 아무 힘도 없었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관련 본문: Q01 설명2·설명3

확인 03

정답 ①

제가 회의는 초기 고구려의 유력한 지배자들이 중요한 일을 논의한 회의입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의 처벌을 정한 기록도 전합니다.

- ② 모든 주민이 같은 자격으로 참여한 회의가 아닙니다. 유력한 지배자들이 참여했습니다.
- ③ 사출도와 여러 가는 부여의 정치 모습입니다. 고구려의 제가 회의와 구별해야 합니다.
- ④ 천군과 소도는 삼한의 제사장과 신성한 공간입니다. 제가 회의의 구성원이나 목적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련 본문: Q02 설명1·설명2·Q09

확인 04

정답 농토

‘농경지’, ‘농사지을 땅’, ‘농사 지을 땅’이라고 쓴 것도 맞습니다. 고구려가 성장한 산간 지역에는 넓은 농토가 부족했습니다.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 식량과 자원을 얻으려 했다는 설명과 연결하세요. 농토가 전혀 없거나 농사를 전혀 짓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본문: Q02 설명3

확인 05

정답 ④

옥저와 동예에는 통합된 왕 대신 읍군·삼로 같은 군장이 각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지역 단위의 지배자와 규칙은 있었습니다.

- ① 통합된 왕이 없었다는 것과 지배자가 없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 ② 군장과 마을 공동체가 존재했고, 동예에는 책화와 같은 규칙도 있었습니다.
- ③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이 왕이 모든 마을을 직접 찾아가 매일 지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본문: Q03·Q04

확인 06

정답 ㄱ. 활 / ㄴ. 말 / ㄷ. 바다표범

단궁은 활의 한 종류, 과하마는 키가 작은 말, 반어피는 바다표범 가죽입니다. 이름만 외우지 말고 어떤 물품이나 동물인지 함께 알아두세요. ㄷ에 ‘물범’이라고 쓴 것도 맞습니다.

관련 본문: Q03 용어 풀이·설명2

확인 07

정답 ②

책화는 다른 읍락의 영역을 침범하면 소·말·노비 등으로 갚게 한 규칙입니다. 각 집단이 생활에 필요한 영역과 자원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 줍니다.

- ① 함부로 영역을 침범했을 때 배상하게 했으므로 자유롭게 함께 쓸 수 있었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 ③ 혼인 상대에 관한 규칙은 족외혼입니다. 족외혼은 같은 씨족끼리만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씨족 안의 혼인을 피하는 것입니다.
- ④ 동예에는 여러 지역을 통합한 왕이 없었고 읍군·삼로 등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책화는 왕이 땅을 나누어 준 제도가 아니라 영역 침범에 배상을 요구한 규칙입니다.

관련 본문: Q03 설명1·Q04

확인 08

정답 족외혼

‘족외혼제’라고 쓴 것도 맞습니다. 같은 씨족 안에서는 혼인하지 않고 다른 씨족 사람과 혼인하는 풍습입니다. 반드시 다른 나라 사람과 혼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본문: Q04 설명3

확인 09

정답 ③

서옥제에서는 신랑이 신부 집 뒤에 마련된 작은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자녀가 자라면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① 옥저의 민며느리제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고구려의 서옥제에서는 신랑이 신부 집 쪽으로 갑니다.
- ② 자녀가 자란 뒤에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갔습니다. 평생 신부 집에만 머문다는 설명이 아닙니다.
- ④ 형사취수제의 설명입니다. 서옥제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관련 본문: Q05 설명1·설명2·Q06

확인 10

정답 민며느리제

‘민며느리 제도’라고 쓴 것도 맞습니다. 옥저의 혼인 풍습으로, 어린 신부의 신랑 집 생활 → 성인이 되어 친정으로 돌아감 → 예물을 치른 뒤 다시 신랑 집으로 와 혼인하는 순서입니다. 처음 신랑 집에서 자라는 과정만 기억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빠뜨리지 마세요.

관련 본문: Q05 설명2

확인 11

정답 ④

형사취수제는 형이 죽은 뒤 동생이 형수와 혼인하는 관계에 관한 풍습입니다. 서옥제는 혼인한 부부가 신부 집 쪽에서 살다가 신랑 집으로 가는 생활 과정에 관한 풍습입니다.

- ① 어린 신부가 신랑 집에서 자라는 풍습은 옥저의 민며느리제입니다.
- ② 형사취수제는 장례 풍습이 아니라 혼인 풍습입니다. 형의 죽음을 계기로 하지만 핵심은 동생과 형수의 혼인입니다.
- ③ 두 풍습이 전한다는 것만으로 모든 주민이 반드시 둘 다 거쳤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련 본문: Q05·Q06

확인 12

정답 ㄱ. 순장 / ㄴ. 가족 공동 무덤

ㄴ은 ‘가족 공동묘’, ‘가족 공동 묘’ 또는 ‘골장제’라고 쓴 것도 맞습니다. 골장제는 죽은 사람의 뼈를 모아 다시 묻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서는 옥저의 가족 공동 무덤을 가리킨 답으로 인정합니다. 부여의 순장은 지배자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 장례 풍습입니다. 옥저의 가족 공동 무덤은 따로 죽은 가족들의 뼈를 나중에 모은 것입니다.

관련 본문: Q07

확인 13

정답 ①

옥저에서는 죽은 가족을 먼저 묻었다가 나중에 뼈를 골라 모아 큰 목곽에 두었습니다. 가족의 유해를 함께 두는 과정입니다.

- ② 살아 있는 가족을 모두 죽여 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함께 묻는 순장과 구별해야 합니다.
- ③ 한곳에 유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날 죽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족 공동 무덤은 나중에 뼈를 모으는 방식입니다.
- ④ 함께 묻혔다는 결과는 비슷해 보여도, 죽음과 매장에 이르는 과정이 다릅니다.

관련 본문: Q07 설명2·설명3

확인 14

정답 ㄱ. 영고 / ㄴ. 동맹 / ㄷ. 무천 / ㄹ. 5, 10

부여의 영고는 12월, 고구려의 동맹과 동예의 무천은 10월입니다. 삼한은 씨를 뿌린 뒤인 5월과 곡식을 거둔 뒤인 10월에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ㄹ에 '10, 5'라고 순서를 바꾸어 쓴 것도 맞습니다.

관련 본문: Q08 설명2·설명3

확인 15

정답 ②

제천 행사가 모두 가을 행사였던 것은 아닙니다. 12월의 영고는 사냥을 중시했던 전통과 연결하며, 삼한의 5월 행사는 씨를 뿌린 뒤 농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행사였습니다.

- ①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 행사입니다.
- ③ 무천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입니다.
- ④ 농사나 사냥 등 생활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행사의 시기와 배경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본문: Q08

확인 16

정답 ㄱ. 군장 / ㄴ. 천군 / ㄷ. 소도

군장은 정치 지도자, 천군은 제사장, 소도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앞의 둘은 사람이고 마지막은 장소라는 점에서 구분하면 헛갈림이 줄어듭니다. ㄱ에 '정치 지도자' 또는 '정치적 지배자'라고 쓴 것도 맞습니다.

관련 본문: Q09

확인 17

정답 ③

소도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져 군장이 함부로 힘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제사와 정치가 나뉘어 있었다는 모습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① 천군은 제사장입니다. 삼한 전체를 다스린 한 명의 왕이 아닙니다.
- ② 소도에서 죄인을 잡아가지 못했다는 특정 공간의 성격을 삼한의 모든 지역에서 범위가 허용되었다는 뜻으로 넓힐 수 없습니다.
- ④ 소도는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군장이 죄인을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관련 본문: Q09 설명2·설명3

확인 18

모범 답안 삼한에서는 군장이 정치를 맡고 천군이 제사를 맡아, 두 역할을 서로 다른 사람이 담당했기 때문이다.

‘군장(신지·읍차)이 정치를 맡음’, ‘천군이 제사를 맡음’, ‘두 역할의 담당자가 나뉨’이 모두 들어 있으면 맞습니다. ‘군장’ 대신 ‘신지·읍차’ 또는 ‘정치 지도자’라고 써도 됩니다. ‘천군’ 대신 ‘별도의 제사장’이라고 써도 됩니다. 정확한 문장이 모범 답안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만 쓰면 발문에서 요구한 두 담당자와 역할의 구분이 빠집니다. ‘천군이 정치와 제사를 모두 맡았기 때문이다’는 제정 분리를 반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관련 본문: Q09 설명1·설명3

확인 19

정답 ①

철은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였고, 변한에서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왜 등에 보내졌습니다. 교역에서 화폐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 ② 삼한에서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습니다. 농사 도구를 모두 돌로만 만들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③ 철 자체를 물건값처럼 건넸다는 뜻입니다. 철로 동전을 만들어 썼다는 뜻이 아닙니다.
- ④ 철은 다른 지역에서도 필요로 했으므로 중요한 교역품이 되었습니다.

관련 본문: Q10

확인 20

정답 ㄱ. 백제 / ㄴ. 신라 / ㄷ. 가야

ㄷ에 ‘가야 연맹’이라고 쓴 것도 맞습니다. 백제는 마한의 여러 소국을 점차 통합하며 성장했고, 진한의 사로국은 신라로 발전했습니다. 변한의 여러 소국은 가야의 여러 나라로 이어졌습니다.

관련 본문: Q11 설명2·설명3

확인 21

정답 ④

백제·신라·가야는 여러 소국의 경쟁과 통합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단순한 이름 변경으로 이해하면 성장 과정의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 ① 세 집단이 같은 해에 한꺼번에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 ② 목지국은 마한에서 한때 중심 세력이었던 나라입니다. 삼한 전체를 합쳐 가야를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 ③ 가야는 여러 나라가 각자의 세력을 유지한 연맹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한 왕의 강력한 중앙 집권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관련 본문: Q11

확인 22

정답 ②

책화와 족외혼은 동예의 풍습입니다. 책화는 영역 침범에 대한 배상, 족외혼은 같은 씨족 안의 혼인을 피하는 규칙입니다.

- ① 제가 회의는 고구려, 소도는 삼한과 연결합니다. 부여의 특징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 ③ 서옥제는 고구려의 풍습입니다. 옥저에는 민며느리제가 있었습니다.
- ④ 사출도와 영고는 부여의 특징입니다. 삼한의 정치 지도자는 신지·읍차 같은 군장이었고 제천 행사는 5월과 10월에 열렸습니다.

관련 본문: Q01·Q02·Q04·Q05·Q08·Q09